日호텔 전시품 된 석탑…시민 중심 환수운동 추진

성보유랑 聖寶流浪

③ 이천오층석탑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2020년 열린 환수염원탑 제막식.


일본 오쿠라호텔 슈코칸 야외에 전시된 이천오층석탑. 본래 이천향교 옆에 서 있던 것을 일제가 무단 반출해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에서 전시했다. 이후 오쿠라재단의 요청에 의해 양도됐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진회 전시 위해 무단 반출

전시 이후 밀약 통해 일본행

현재 오쿠라호텔 야외에 전시

2003년 지역문화지 문제 제기

이천 출신 재일교포 위치 찾아

시민 중심으로 환수운동 전개

30여 차례 협상, 日호텔 버티기

코로나로 협상 중단 2023년 재개

진우 스님 "환수 지지" 서명도

일본 오쿠라호텔 슈코칸(集古館) 야외에는 이천오층석탑과 평양 율리사지 팔각칠층석탑이 있다. 모두 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무단 반출됐다. 특히 이천오층석탑은 신라계 석탑 양식을 그대로 계승한 고려 초기 석탑으로 당시 이천 지역 불교문화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어떤 연유로 두 석탑들이 본래 자리를 떠나 타향의 호텔 전시물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때문에…

이천오층석탑은 본래 이천향교 옆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선총독부가 개최한 '조선물산공진회' 전시를 위해 반출됐다. 앞선 연재에서 밝힌 대로 '조선물산공진회'는 한일합방 이후 5년 동안 조선의 산업 진흥과 문명 개화를 명분으로 식민 지배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열렸다.

'조선물산공진회' 개최 당시 반출된 석조문화재들은 야외 전시물로 활용됐다. 당시 석탑은 광화문에서 미술관까지 총 6점이 전시됐고 이천오층석탑은 그중 하나였다.

'조선물산공진회' 전시를 위해 이천을 떠난 오층석탑의 수난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하수인으로 거대 재벌이 된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郎)는 전시를 위해 철거한 경복궁 자선당(세자의 침소)을 일본으로 가져갔고, 반출됐던 이천오층석탑도 조선총독부를 통해 양도받았다.

자선당은 '조선관'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됐고, 한반도에서 가져온 석탑과 유물 등으로 오쿠라는 일본 최초 사립 박물관인 오쿠라 슈코칸을 1917년 개관했다. 당시 조선실에서 진열된 미술품이 3692점이나 됐으며, 서적도 1만5000여 권이 있었다.

이천오층석탑의 양도는 슈코칸 개관 이후 이뤄졌다. 1918년 7월 오쿠라 슈코칸 이사 사카다니 요시로(阪谷芳郎)가 당시 조선총독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오쿠라가 하세가와를 만나 재건된 자선당에 어울리는 석탑 양도에 대한 구두 약속을 받았고, 총독부 담당 관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런데 애초 오쿠라 측이 양도받기를 원한 석탑은 이천오층석탑이 아니라 평양 정류장 앞 팔각칠층석탑이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평양 정류장 앞 팔각칠층석탑이 세인의 이목이 있어 반출 불가함을 밝히고, 대신 박물관에 있는 이천오층석탑의 이운을 권했다. 이를 받아들인 오쿠라 슈코칸은 1918년 조선총독부 반출 허가를 요청했고 총독부는 다음 날 바로 '허가한다'는 답신을 보냈다. 그렇게 식민 재벌의 탐욕으로 이천오층석탑은 현해탄을 건너 오쿠라 호텔 옆 슈코칸 경내로 이운됐다.

야외 전시물로 전락한 이천오층석탑은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 2000년대 이후 한국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석탑의 훼손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심지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석탑 4층 모서리가 파손되고 옥개석이 비틀어지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실제 2023년 일본을 찾아 석탑을 점검한 오금석석예석재 대표(석공예 명장)는 방일 보고서를 통해 "잦은 이관과 지진으로 석재와 석재 사이의 이음부분이 많이 갈라져 있고, 이를 시멘트로 붙여 놓았다"며 "1, 2층 탑신의 풍화가 심각하고 훼손도 상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들,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다

잊혀졌던 이천오층석탑이 다시 알려진 것은 일본에서 발간된 재일 교민 월간지 〈아리랑〉 1996년 1월호를 통해서다. 당시 잡지는 경복궁 자선당 유구를 취재하기 위해 슈코칸을 방문했다가 석탑의 존재들을 알게 됐다고 기술했다. 이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은 이천문화원에서 발간한 문화지 〈설봉문화〉 제30호(2003년 가을호)에 '일제의 문화재 수탈과 이천지역-향교 앞 오층석탑의 이전 경위를 중심으로'를 통해서다. 이후 이천 출신 재일교포 김창진 씨가 2005년 12월 이천문화원을 방문해 석탑환수운동을 제의했고, 2006년 '이천의제21'에서 석탑 환수운동의 공식 제안이 이뤄졌다.

2007~2008년 두 번의 시민토론회가 진행된 이후 2008년 8월 지역 시민단체 24곳이 참여해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상임위원장 조성원, 이하 환수위)가 공식 창립됐다. 환수위는 이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환수 서명 캠페인을 통해 9개월 동안 시민 10만9000여 명의 서명 동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현지 조사를 비롯해 학교 순회 교육, 전시회, 국제심포지엄, 학생사생대회 등을 정례적으로 진행하며 시민 환수운동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했다.

코로나 펜데믹에도 환수위는 2020년 1월 환수염원탑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가졌으며, 2021년에는 그간의 환수운동을 정리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2023년부터 환수운동 시즌2를 전개했다. 환수위는 그해 9월 20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 전개를 대내외에 천명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환수 지지 입장문'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지지 입장문에서 "이천오층석탑은 일제로부터 무단반출됐다는 조선총독부의 명백한 근거 문서가 남아 있는 몇 안되는 국외 소재의 우리 문화유산"이라며 "한국 불교계의 환수 지지 성명이 민감한 정세 속에서 보다 종교적·문화적 측면이 한일 교류에 있어 물꼬를 틀 수 있는 역할이라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불교의 최대 종단인 조계종은 환수위가 일본 오쿠라재단에 펼치는 '이천오층석탑' 환수 활동에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환수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평택 자비사 주지 보문 스님은 "인구 20만 명 정도의 소도시에서 10만9000여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20여 년 동안 환수운동을 펼쳐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긴 호흡으로 시민 환수운동 전개

환수위는 2010년부터 매년 방일해 오쿠라문화재단과 환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30여 차례 이뤄졌다. 아직 실제적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환수위는 포기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환수위는 오쿠라문화재단 측에 "2020년 이천시민들이 조성한 환수염원탑과 이천오층석탑을 교환하자"는 제안을 해 놓은 상황이다.

이우정 환수위 사무처장은 "지난 협상에서 오쿠라문화재단 측이 환수염원탑을 조성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총무원장 스님 지지 입장문 등도 모두 전달돼 환수운동이 잘 이뤄지고 있음을 재단도 알고 있다"면서 "지난해 재단 측 사무국장이 교체돼 다시 우호 관계를 형성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제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환수위 역시 이를 위해 미래세대 교육과 운동 홍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시무처장은 "이천 지역에서만 활용되는 교과서를 제작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진행하며 이천오층석탑과 환수운동에 대해 알리고 있다"면서 "매년 학생 사생대회와 지역문화축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보문 스님은 "문화유산 환수는 30~50년을 보고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사안"이라며 "환수위는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시민들과 호응·동참을 이끌어 내며 석탑 환수운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